

정현웅의 출판물  
일러스트레이션  
표현기법: 신문,  
단행본, 잡지를  
중심으로

Illustrations for  
Publications  
by Jeong  
Hyunwoong:  
Focusing  
on the  
Newspapers,  
Books, and  
Magazines

박소민

Park Somin

일러스트레이터,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석사과정  
Illustrator, M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서론
- 근대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정현웅의 역할
- 정현웅의 일러스트레이션 분석
  - 신문연재소설 일러스트레이션
  - 단행본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 잡지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 어린이 도서와 잡지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 결론

## 요약

정현웅은 현대적 디자인 개념이 태동하기 시작했던 근대 인쇄출판 문화 속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개척자로 활동했다. 그는 서양 문화를 수용하고 복제 기술로 인한 대량생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일찍이 순수미술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구분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은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정현웅이 제작한 신문, 잡지, 단행본을 매체별로 분류하고 표현 기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현웅이 신문화와 전통이 교차하던 시기에 뛰어난 미술적 기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시대와 대중의 취향을 반영한 이미지를 생산한 근대의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을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 인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현된 그래픽 디자인의 기반을 다지고자 노력했던 정현웅의 작품은 한국 그래픽 디자인 역사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핵심어

정현웅,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이너

## Abstract

Jeong hyunwoong was a pioneer of graphic design in modern printing culture. He embraced Western culture, acknowledging the significance of mass production and the impact of cloning technology. Early on, he recognized a clear distinction between fine art and illustration, considering it an independent area. In this study, I tried to categorize his works by media (newspapers, magazines, and books) and to analyze his techniques. This study revealed that Jeong hyunwoong played a crucial role as a modern graphic designer since he embraced new culture with exceptional artistic skills, crafting images that captured the essence of that time. He also appealed to the public when new cultures and traditions converged. Ultimately, his work laid the groundwork for modern graphic design in Korea and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ts history.

## Keywords

Jeong Hyeonung, Illustrator, Graphic designer

## 1. 서론

이 연구는 격변하는 한국 근대 시기에 일러스트레이터의 역할을 수행(遂行)했던 정현웅(鄭玄雄, 1910~1976)의 업적에 관한 고찰이다.

정현웅은 1910년에 출생하여 일본의 문화정책으로 인쇄출판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유통이 활발해지던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근대 인쇄 기술 혹은 사진술로 인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인쇄출판물의 시각 이미지 영역에서 독자적인 작품성을 구축하고, 나아가 실무에서 다량의 신문·잡지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며 한국 근대 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금까지 정현웅은 주로 다재다능한 미술가로서 연구되었기에, 그의 작품들은 디자인사적 관점으로 다루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삽화계의 거장’이라 불릴 만큼 사회적 업적을 쌓은 정현웅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작업량과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더불어, 그의 삽화들은 예술 작품처럼 창작을 목적으로 그려졌던 것을 비롯해 대량생산 시대가 요구하는 시각 이미지의 재현과 모방에 이르기까지 제작 목적이 다양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현웅이 제작한 일러스트레이션은 한국 근대 디자인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양미술 사조의 유입과 복제 기술로 인한 대량 생산의 파급력을 인지한 정현웅이 「삽화기」에서 순수미술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구분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을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역설했던 배경과 계기에 주목했다.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 논문은 정현웅이 디자이너로서 제작했던 신문연재소설과 단행본·잡지 표지 속 일러스트레이션을 분석했다.

근대 인쇄술이 도입되면서 한국에도 기술 복제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기술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활자와 이미지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대량 복제 기술의 공정법에 맞는 시각 언어 형태인 ‘일러스트레이션’ 개념이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인쇄출판 문화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전통적으로 그림은 글을 보조하는 수단이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능으로만 사용되었으나, 대량생산 방식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매체의 등장으로 그림의 영역, 다시 말해 ‘일러스트레이션’이 독자적인 장르로 발전하면서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이미지로 변모하게 된다. 일러스트레이션 장르의 발달은 신문, 잡지, 단행본을 매개로 기술과 자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이미지로의 전환을 촉진했다.

정현웅은 이 시기에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주도했으며,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신문과 잡지의 구독률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현웅의 디자인 철학과 방법론에 주목하여 그의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근대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정현웅의 역할

정현웅은 서양 문화의 유입과 근대 인쇄 기술로 인해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던 20세기 초반 시각 문화 영역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정현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1930년대에는 대량 생산 과 복제로 인해 인쇄출판물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정착되었다. 동시에 신문 잡지의 판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각 이미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외래로부터

유입된 서구문화와 일본의 근대 이미지가 혼재하던 시기에 정현웅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도적으로 출판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림과 이미지를 독자적인 장르, 다시 말해서 독자적 감상을 위해 제작되었던 회화와 구별되는 기능적이며 산업적이고 계몽적 목적을 가진 ‘일러스트레이션’으로서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처럼 확고한 그의 가치관은 글 ‘삽화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웅은 ‘삽화기’에서 삽화란 흔히 소설의 설명도일 뿐이라는 시각을 비판하며 삽화는 예술적인 동시에 대중적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갖춘 감상화<sup>1)</sup>라고 정의 내렸다. 이렇듯 정현웅은 인쇄출판물의 복제성과 대중성이 지닌 근대적 매체의 특성을 인식하고, 문자의 기능과 분리된 새로운 시각 이미지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의 독립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동아일보사 직원으로 입사해 조선일보사, 조광사, 서울신문사에서 근무하며<sup>2)</sup> 당대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다.<sup>3)</sup>

정현웅은 자신만의 명확한 이론에 따라 작품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첫째, 그는 서양미술 사조의 형식과 드로잉 기법을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그는 사진 매체의 발명으로 인해 재현적 기능의 사실주의적 그림보다 형태와 색채 그리고 선이 조화를 이루는 추상적 표현법에 관심을 가졌다.<sup>4)</sup> 이러한 경향은 경성제2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부터 일본 유학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경성제2고등보통학교에 재학 당시 정현웅은 도화 교사로 재직 중인 야마다 신이치와 사토쿠니오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은 도쿄 미술학교 출신으로 근대 화가를 여럿 배출한 인물이다. 정현웅도 이들에게 도화 교육을 받으며 그림의 기초를 다졌고, 몇몇 교사들의 도움으로 졸업 후엔 가와바타 미술학교에 진학했다.<sup>5)</sup> 이렇게 그는 20세기 동시대 서양미술 사조를 수용하면서 ‘그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회화의 기능을 산업적 가치와 융합하여 효율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갖춘 근대 디자인으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므로, 대량생산과 복제에 적합한 근대 디자인의 ‘그래픽’ 개념이 등장하면서 정현웅은 정해진 판형 내에서 이미지를 기획하여 창조하는 ‘디자인’의 실무를 시작했다. 그가 신문사와 출판사에서 각 매체의 형식과 상황에 맞는 기능적 이미지를 제작했던 것은 오늘날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현웅이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표현하고자 했던 일러스트레이션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 3. 정현웅의 일러스트레이션 분석

#### 3.1. 신문연재소설 일러스트레이션

신문연재소설 일러스트레이션은 정현웅이 입사 후 처음으로 작업한 장르이다. 열정이 가득했던 신인 정현웅은 사진기를 활용하기보다는 펜과 붓을 사용하였으며, 인물 묘사뿐만 아니라 장소와 상황 묘사에도 주의를 기울여 텍스트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1) 정현웅, 「삽화기」, 《인문평론》, 1940.3.  
 2) 박소민, 「정현웅의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24), p.32  
 3) 신수경·최리선, 『정현웅 시대와 예술의 경계인』, (돌베개, 2012), p.102, 정현웅이 조선일보사에서 8년간 근무하며 신문과 월간 잡지에 그린 그림들을 대략 계산해 보면, 신문삽화 1,400여 매, 잡지 삽화 1,830여 매,

총 3,230여 매, 그리고 잡지 《조광》, 《여성》, 《소년》 표지화 65매 정도를 그렸으며, 일제하 장정한 단행본의 숫자만 해도 70종을 넘길 정도였다.  
 4) 정현웅, 「양화감상법」, 《조형예술》, 1946.5.  
 5) 최리선, 「鄭玄雄의 작품 세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5), p.6



[그림 1] 이기영, <어머니>, 《조선일보》, 27회, 1937.5.



[그림 2] 채만식, <탁류>, 《조선일보》, 97회, 1938.1.22.



[그림 3] 김영수, <소복>, 《조선일보》, 12회, 1939.1.24.



[그림 4] 김남천, <바다로 간다>, 《조선일보》, 8회, 1939.5.11.



[그림 5] 이성표, <비 오는 거리>, 《조선일보》, 1회, 1939.3.10.



[그림 6] 이태준, <청춘무성>, 《조선일보》, 72회, 1940.6.6.

노력했다.<sup>6)</sup> 신문은 정기간행물 특성상 신속성이 필수적인데, 정현웅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현웅의 초기 신문연재소설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실험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진다. 명암과 원근법을 활용하여 입체감을 부여하였으며, 인물 표현이 능숙한 정현웅의 기량이 돋보인다. 특히 이기영의 《어머니》[그림 1], 채만식의 《탁류》[그림 2], 김영수의 《소복》[그림 3]에서는 인물들이 소설 속에서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어 표정과 동작에서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자유자재로 묘사했다. 농담 표현이나 세심한 표현 외에도 클로즈업(close-up)이나 거울을 이용한 구성과 연출을 통해 감정을 고조시키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는 작품 김남천의 《바다로 간다》[그림 4], 이상표의 《비 오는 거리》[그림 5], 이태준의 《청춘무성》[그림 6]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

정현웅이 사용하던 또 다른 기법 중 부드러운 명암을 빼고 펜과 같이 축이 얇은 건식재료로 딱딱하게 묘사한 선묘도 볼 수 있다. 정현웅은 과감한 해칭(hatching)기법을 적용하여 명도를 조절하고, 주제 극대화를 위한 강조와 생략을 적절히 사용했다. 이러한 기법의 경우 중간 단계의 명암은 표현이 어려워 간단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정현웅은 만화가로서도 손색없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을 만큼 만화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업적을 남겼는데, 이러한 자질은 신문연재소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명암이나 세부 묘사 없이 진한 선으로 윤곽을 명확히 하고, 인물의 외양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표현법을 보여주었다. 숙련된 드로잉 기술과 다양한 표현 기법을 구사한 정현웅의 신문연재소설 일러스트레이션은 독자들에게 충분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했다.

### 3.2. 단행본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정현웅은 신문 일러스트레이션보다 독자적인 성격이 강한 단행본 표지 디자이너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그는 표지에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뿐만 아니라 지면을 구성하는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색채 등을 디자인하며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정현웅은 한국 근대 초기 복디자이너라고 평가될 수 있다.

정현웅의 단행본 일러스트레이션은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스타일이 시도되었다. 외국 문화의 유입이 필수적이었던 근대 시기에 급변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현웅은 서양미술 양식을 모방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일러스트레이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정현웅이 제작했던 단행본 표지 중에서 잘 알려진 『사랑』[그림 15]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얼굴을 돌려 독자로부터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여성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대 탁월한 글솜씨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던 이광수의 베스트셀러 『사랑』의 주인공인 석순옥은 미모와 지식을 겸비한 참한 성품의 여성으로, 표지에 삽입된 정현웅의 그림에서도 간호사 복장을 하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은화한 분위기를 풍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정현웅이 소설 속 인물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당시 시대가 요구했던 이상적인 이미지로서 신여성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현웅이 표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표지 이미지를 통해 책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하여 문학이 책으로 물질화되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역할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6) 신수경·최리선, 『정현웅 시대와 예술의 경계인』, p.94

7) 박소민, 『정현웅의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p.72



[그림 7] 박영준, <작희>, 『주간서울』, 1949.7.8.



[그림 8] 황순원, <청산가리> (상), 『주간서울』, 1949.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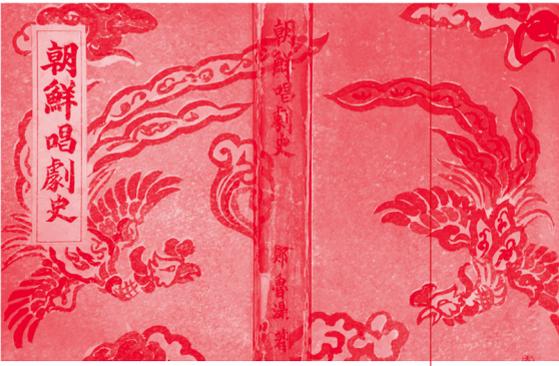
[그림 9] 안수길, 『잠든바다』, 『주간서울』, 1949.8.15.



[그림 10] <야앵광상곡>, 『조선일보』, 1939.4.19.



[그림 11] <야앵광상곡>, 『조선일보』, 1939.4.21.



[그림 12] 정노식, 『조선창극사』 표지, 1940.1.18.



[그림 13] 현대시인전집 1, 『이운악집』 표지, 1949.1.25.



[그림 14] 현대시인전집 2, 『노천명집』 표지, 1949.3.15.



[그림 15] 이광수, 『사랑』 (전편) 표지, 1938.10.25.



[그림 16] 《삼사문학》 표지 1집, 1934.9.1.



[그림 17] 《삼사문학》 표지 2집, 1934.12.1.



[그림 18] 《삼사문학》 표지 3집, 1935.3.1.



[그림 19] 《삼사문학》 표지 4집, 1935.8.1.

근대 시기에는 대체로 외국 문화를 답습하는 사회 흐름이 있었지만, 정현웅은 외국 문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국의 정취를 풍기는 이미지도 많이 사용했다. 그는 주로 식물과 봉황을 일러스트레이션의 소재로 활용했다. 판소리에 관해 저술한 이론서인 정노식의 『조선창극사』[그림 12]에서는 봉황과 구름이 표지 전면을 유영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냈고, 민화의 주요한 색채인 빨강, 노랑, 초록, 검정으로 한국적인 느낌을 자아냈다. 그리고 현대시인전집1 『이옥악집』[그림 13]과 현대시인전집2 『노천명집』[그림 14]의 표지는 화조도와 십장생도가 어우러진 동양의 화려한 이미지로 구성했다.

### 3.3. 잡지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정현웅은 최초의 모더니즘 잡지라고 평가받는 《삼사문학》을 통해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입문했다. 《삼사문학》 4집까지 표지 디자인을 담당한 정현웅은 잡지의 성격을 시각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입증하듯 표지 부문에서 대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sup>8)</sup> 이렇게 《삼사문학》 창간과 동시에 정현웅은 유능한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했다. 이후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등 여러 신문에 재직하며 잡지 《신가정》, 《여성》, 《조광》 등을 포함해 많은 잡지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했다.

정현웅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문학 장르와 결합하면서 모더니즘의 경향 속에서 《삼사문학》, 《박문》과 같이 새로운 시각적 표현을 선보였다. 그가 제작한 잡지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후기 인상주의, 야수파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적극 반영한 것에 주목할 만한 하다. 특히 《삼사문학》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잡지의 사회주의적 이념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더니즘적 성향을 강하게 반영했다. 러시아 구성주의와 유럽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에서 실험되었던 선의 조화에 중점을 두며 기하학적인 형태와 추상적인 구성을 시도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주고 있다. 정현웅은 주제와 상징성을 통해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는 단순한 그림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어 한국 근대 일러스트레이션의 발전을 이끌었다.

수필 전문 잡지인 《박문》의 표지[그림 20]에서도 정현웅은 주로 선묘를 사용하여 왜곡된 인물을 묘사했다. 《박문》 3집의 표지는 서양의 야수파 화가인 ‘드랭(André Derain)’의 작품 〈어릿광대와 피에로〉[그림 21]에서 기타를 들고 있는 광대의 그림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통해 그가 동시대 서양미술 사조의 흐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잡지 표지에서 시각적 새로움과 주목성은 상품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박문》의 표지에 표현된 독특한 형태의 모자와 다이아몬드 패턴의 의상을 입고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남성은 날카로운 턱선과 야윈 듯 패인 볼 등 얼굴 표현이 원작과 유사하게 묘사됐다. 그러나 원본과 달리 푸른 계열의 색으로 통일하여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후반 추상회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1930년대 후반 이후 동양주의 이념과 전시체제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더 이상 반항을 일으키지 못했고,<sup>9)</sup> 정현웅의 작업에서도 이러한 그림 유형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그가 서양미술 사조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동시대 대중 취향을 선도하는 디자인으로 응용하여 표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정지석·오영식, 『틀을 돌파하는 미술: 정현웅 미술작품집』, (소명출판, 2015), p.394

9) 서유리, 「한국 근대의 기하학적 추상 디자인과

추상미술 담론: 1920-30년대의 잡지 표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제35권, (미술사연구회, 2010), p.25



[그림 20] 《박문》 표지 제3집, 1938.12.1.



[그림 21] 앙드레 드랭, <어릿광대와 피에로>, 1924

#### 4. 결론

정현웅은 20세기 초 인쇄술의 발전과 산업화 확산 시기에 새로운 기술문명과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독립적인 장르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 계몽적 목적으로서 그림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인쇄출판물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 사진술이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 독자들은 회화적 그림을 선호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된 출판인쇄물에서 기능적 그림으로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수요가 높았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상업적 화가, 다시 말해서 디자이너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현웅은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업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인쇄출판 경향과 유럽의 예술 동향을 연구하여 표지에 반영했다. 매체와 기법을 구분하지 않고 근대 인쇄출판매체에서 활약하며 근대 일러스트레이션의 입지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정현웅은 실무에서 이미지가 변화되는 흐름을 경험하며 그림을 감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산업과 기술이 협업하여 예술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즉, 그의 작품은 인쇄출판 매체와 대중들 사이에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시각적 상징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한국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현웅은 한국의 근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다시 말해 근대 디자이너로서 사회에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신수경·최리선, (2012), 『정현웅 시대와 예술의 경계인』, 돌베개
- 정지석·오영식, (2015), 『틀을 돌파하는 미술: 정현웅 미술작품집』, 소명출판
- 박소민, (2024), 「정현웅의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서유리, (2010), 「한국 근대의 기하학적 추상 디자인과 추상미술 담론: 1920-30년대의 잡지 표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제35권, 미술사연구회
- 최리선, (2005), 「鄭玄雄의 작품 세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현웅, (1940), 「삼화기」, 《인문평론》
- 정현웅, (1946), 「양화감상법」, 《조형예술》